

# 濟州民謠에 投影된 島民意識 分析

—濟州島民性과 意識構造 形成背景—

姜 昌 赫\*

## 目 次

I. 序 論	IV. 分析結果
II. 理論的 背景	V. 意識構造의 形成背景 要因
III. 研究方法	VI. 要約 및 結論

## I. 序 論

### 1. 研究의 趣旨 및 目的

靑少年들을 健全한 社會의 一員이 되도록 指導, 育成해야 함은 重要한 社會的 機能中の 하나이다. 이는 靑少年들이 그 社會의 未來 主人公이 되기 때문에 갖는 當然한 成人과 社會·國家의 關心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그 社會의 靑年들이 갖고 있는 意識構造에 의하여 그 社會의 將來가 決定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 靑少年들의 意識構造는 現代의 社會的 土壤과 生活의 場인 家庭·學校·社會를 통해서 形成되는 바가 크지만, 이를 보다 體系的으로 究明하기 위

\* 濟州大學校 師範大學 助教授

해서는 過去 우리의 先島民들의 意識構造, 즉 集團性格을 파악해 볼 必要가 있다. 이 作業은 다음과 같이 二次로 區分하여 試圖했다.

- 一次：濟州先民의 意識構造와 形成背景
- 二次：現濟州民의 意識構造와 形成背景

本研究는 一次試圖로서, 解放前까지 濟州先民들은 生活場面에서의 當面問題들을 어떻게 適應하면서 本島民意識이 形成되었는가를 濟州民謠를 통하여 그 適應 패턴을 防禦機制·合理化機制·逃避機制·攻擊機制 등으로 區分, 分析하여 濟州先民意識의 斷面과 그 形成背景要因을 究明해서, 이를 基礎로 오늘날 濟州靑少年들의 意識構造를 肯定的 方向으로 形成, 發達 시키는 데 寄與하고자 한다.

이제 本研究의 具體的인 目的은

- (1) 濟州先民의 意識構造(集團性格)를 分析하고
- (2) 그들의 意識構造의 形成背景要因을 파악해 봄으로써 오늘날 濟州地域의 靑少年問題를 보다 心層的으로 理解하고 指導, 育成하는 데 示唆을 얻고자 한다.

## 2. 研究의 接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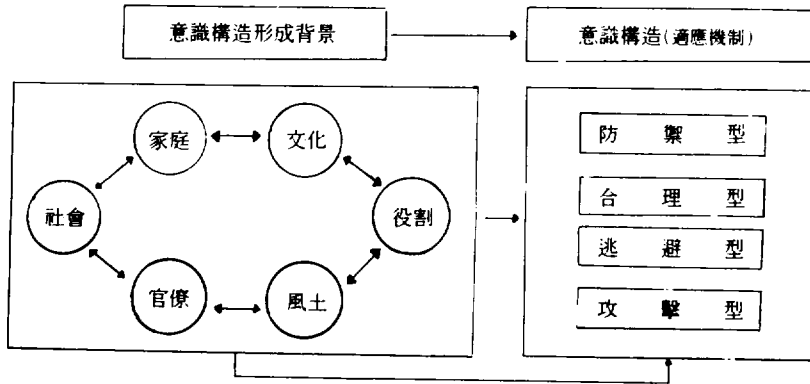
性格이란 「精神·物理的 體系」로 본다면 精神이 外顯化된 可視的 反應(外的性格)과 不可視的 行動傾向性(內的性格 또는 意識·無意識) 등을 포함한 概念이라 할 수 있다.

英語의 Personality란 Greece語의 persona(假面)에서 由來한다. 老人의 탈을 쓰면 老人의 역할을 하고, 兩班의 탈을 쓰게 되면 兩班의 役割을 하는 것처럼 道德的 僞善만을 聯想할지 모르나 탈을 쓴 사람은 個性이 아닌 것과 같이 persona는 眞相이 아니라 假相이란 뜻도 포함된다.

persona는 集團精神의 한 斷面이다. 그것은 흔히 個性이라고 錯覺하기 쉬운 假面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의 생각, 信念, 價値觀」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결코 自己의 것이 아닌 「남의 생각, 信念, 價値觀」임을 알 수 있다.<sup>1)</sup>

1) 李符永, 《分析心理學》, 一潮閣, 1986, pp. 65~65.

本研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接近方法은 다음의 <圖1-1>과 같이 想定했다.



<圖1-1> 濟州先民意識構造의 形成背景要因模型

## II. 理論的 背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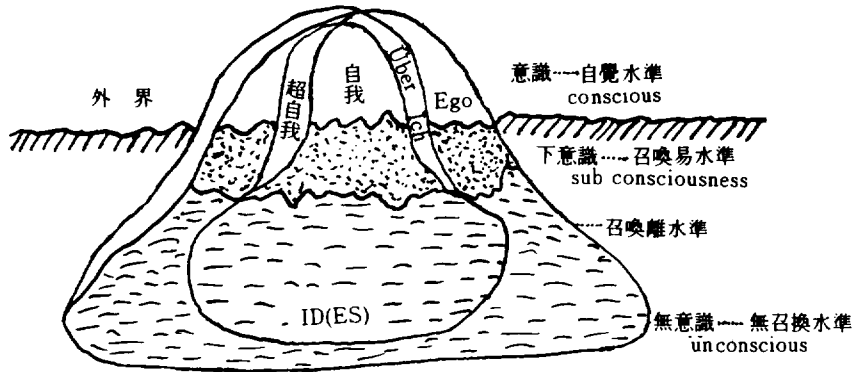
### 1. 意識構造와 機能

#### 1) 精神構造

##### (1) S. Freud의 見解

Freud는 人間의 精神을 北海洋에 떠돌아다니는 氷山에 比喻해서 그 대부분은 意識의 밑바닥에 숨어서 自覺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精神構造를 두 가지 基本概念, 즉 意識·前意識(下意識)·無意識과 다른 하나는 ID(原初我)·Ego(自我)·Super-ego(超自我)의 概念이다. 각기 三層으로 된 두 系列의 概念은 서로 重複關聯됨으로써 더욱 複雜한 構造가 되며 그것을 圖說하면 <圖2-1>과 같다.<sup>2)</sup>

2) 韓正愚, 《精神衛生論》, 慶北大學校師範大學, 1957, pp.13~15.



〈圖2-1〉 心的勢力과 精神活動의 各水準  
(psychic forces, mental activity)

먼저 意識·前意識·無意識과의 關係를 살펴 보면 人間의 全精神機制는 根源的으로는 無意識에 依存하는 바가 많으며, 그 외에도 無意識을 重視해야 할 理由를 概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意識의 精神內容과 全體의 精神內容과는 마치 水面上에 나타난 氷山과 水中에 잠긴 부분은 큰 것과 같이 우리의 記憶作用에 따라 經驗을 再生할 때, 再生되는 것은 대체로 前意識層에 있으며, 거기에서 意識層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매우 再生하기 困難 혹은 不可能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無意識의 心層에 潛在해 있기 때문이다. 前意識 또는 無意識層의 潛在觀念은 快-不快, 喜-悲, 愛-憎 등의 感情的 意味關係에 따라 意識層에 表出된다.

② 意識의 動機와 無意識의 動機의 相剋現象은 麻醉·高熱 또는 蒙中에서는 覺醒時와는 矛盾撞着되는 言動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③ 新奇한 觀念의 出現이라든지 記憶의 再生 또는 問題解決 등이 當事者가 별로 意識함이 없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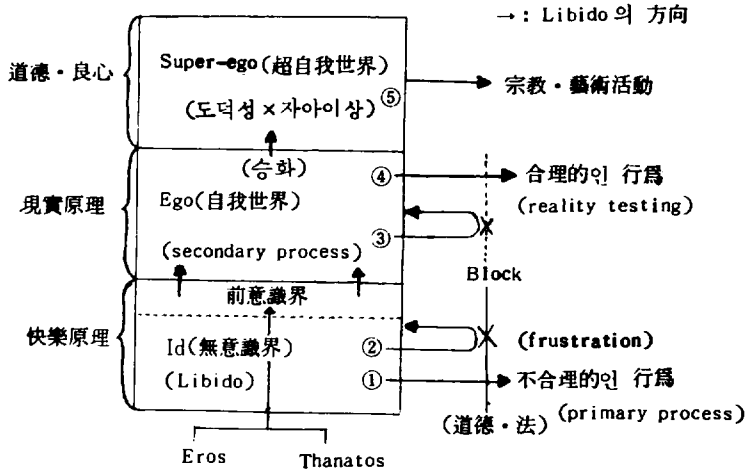
④ 꿈의 解釋인데, 時空間的으로 當황하며 不條理한 꿈을 分析하고 解釋할 때, 自覺水準인 意識界外の 광범한 心的 活動을 熟考하지 않을 수 없다.

⑤ 日常生活中, 약간의 心的 現象, 예컨대 行爲의 過失, 文字의 誤脫 등, 우연한 것도 無意識 속의 潛在觀念과 關係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⑥ 精神分析學은 人間精神에서 無意識界가 重要한 役割을 한다는 事實에 입각해서 精神分析療法에 成功한 바 크다.

이상과 같은 理由로 Freud는 無意識 속에서 觀念을 表出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抑壓하고 있는 防害物을 除去해야만 되는데 이것이 精神分析療法에 의해 可能하다.

다음으로 ID(原欲, 原初我)·Ego(自我)·Super-ego(超自我)와의 關係를 살펴 보면 다음의 <圖2-2>와 같다.<sup>3)</sup>



<圖2-2> Freud의 精神構造圖

Freud에 의하면 ID 속에는 本質로서 Libido(性 또는 性的 Energy)가 內包되어 있는 바, 이를 行動의 根源으로 삼고 Libido의 移動에 의하여 性感帶(erogenous zone)가 생기게 되며 또한 ID에서 Ego·Super-ego 등으로 上昇作用을 한다. 예컨대 한 個人이 ①의 경우를 택하게 되면 性 Energy의 放出을 社會倫理나 法을 어기면서 遂行했으므로 強姦行爲와 같이 犯法行爲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外的 制約에 걸려 다시 ②와 같은 形態로 되돌아와서 前意識界를 통하여 ③이나 ④의 形態를 취하게 된다. ③의 경우에는 結婚生活의 파탄이나 獨身生活 등으로 Libido의 發展이 自意 또는 他意에 의하여 다시 안으로 전환하지만, 대부분은 現實에 알맞는 形態로 Libido를 변경시켜 밖

3) 金東圭, 《兒童·青年發達論》, 螢雪出版社, 1985, p. 40.

으로 出現시킨다. ④의 경우는 結婚이란 合法의 手段으로 性的 Energy를 放出시킨다. 그런데 되돌아 온 ③의 Libido는 最從段階인 Super-ego로 昇華시켜, 아무런 거침없이 外部로 뱉어 나가게 된다. 사실 世界史를 創造한 先覺者와 偉人中에는 이와 같이 性的 Energy를 昇華시켜 偉大한 업적을 남긴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의 概念으로의 精神構造(性格構造)의 內容과 그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4)</sup>

ID(ES; 原欲, 原初我)

ID는 生得的인 것으로 快樂의 原理에 따르며, 그의 대부분은 意識界에 接近可能하며 意識에 活力을 提供해 준다. 또한 ID는 無意識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진다. ID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 ① 快·不快로서 事物을 處理한다.
- ② 超倫理的이며 극히 自己中心의이다.
- ③ 그것을 否定하려 해도 아무런 影響을 미칠 수 없는 宿命的인 것이다.
- ④ 超時空的이고 非倫理的의이다.
- ⑤ ID는 모두 抑壓된 觀念을 含有한다.
- ⑥ 遺傳的 要素로서 系統發生的, 種族進化的으로 이루어진 것을 含有한다.
- ⑦ ID 속에는 生과 死의 葛藤이 행해진다.
- ⑧ ID 속에는 行動의 生得的인 能力인 本能이 자리잡고 있다.
- ⑨ ID 속에는 모든 習慣形成이 행해진다.
- ⑩ Libido의 大貯藏庫이다.

Ego(Ich; 自我)

- ① 自覺水準으로 現實의 原理에 따른다.
- ② 損得으로써 事物을 處理하는 부서다.
- ③ 認識的·論理的이며 주로 外界에 關여한다.
- ④ 自律的이면서도 한편으로 Super-ego의 支配를 받는다.
- ⑤ 外界의 現實, ID의 表出抑制, 超自我에 의한 禁止, 調整 등의 作用이 集中되는 곳이다.
- ⑥ 時間遵守, 道德的 規則을 지킨다.

4) 韓正愚, 前揭書, pp.16~17.

⑦ 言語化하며 꿈을 檢閱한다.

Super-ego(超自我)

超自我는 上位自我·理想我(ideal self)라고 할 수 있으며, 善惡·美醜·倫理道德·良心으로 事物을 處理하는 부서로서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

- ① ID와 Ego를 支配하나 Ego에게 敬遠받기 쉽다.
- ② 自我보다는 現實的인 程度가 작고 前意識層에도 뿌리 박고 있다.
- ③ ID와 密接히 關聯되고 있으며, 系統的·種族的 遺傳에 關係한다.
- ④ Oedipus-complex (Elextra-complex)에서 볼 수 있는 親子間的 미묘한 複合感情과 그 외 兒童의 感情과 關聯되며 대체로 同性의 父母에서 影響받는다.

## (2) C·G·Jung의 見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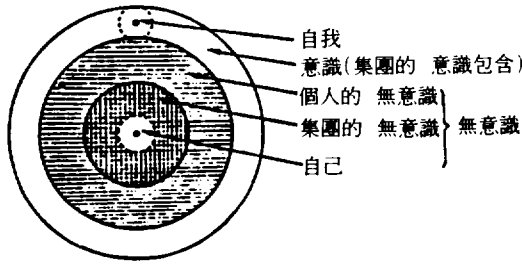
人間의 精神에는 우선 Ego(Ich: 自我)라는 것이 있다. 自我가 없는 精神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自我란 있게 마련이다. 自我의 틀레에는 意識이 있고, 自覺하고 있는 모든 것은 自我를 통하여 聯想되는 精神的 內容이 意識이다. 自我는 意識의 中心에 있다. 自己自身이 알고 있는 世界가 意識이라면 自身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모르는 精神世界를 無意識이라 부른다. 自我에 속하지 않으며 이에 아직 關聯되지 않고 있는 心理的 傾向, 內容들을 통틀어 無意識으로 規定한다. 이는 아직 意識되지 않는 精神世界로서 自我의 統制 밖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未知의 世界」라 불러도 좋다.<sup>5)</sup>

自我란 한편으로는 外界(external world)와 關聯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自己의 마음, 즉 內界(internal world)와 關係하고 있다. 우리가 社會現實과 關係를 갖고 거기에 適應해 가는 가운데, 人間에게는 각종 對社會的 適應態度라든가, 役割이 주어진다. 이러한 適應手段은 대부분 어느 集團에 共有하는 手段이며 그 個人에 特有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集團이 個人에게 주어진 役割·約束·그 외의 여러 對應樣式을 Jung은 persona라 불렀으며, 이를 圖說하면 다음의 <圖3-1><sup>6)</sup> 및 <圖3-2><sup>7)</sup>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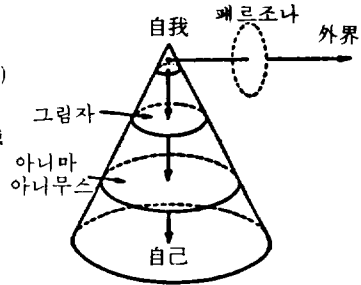
5) 李符永, 前揭書, pp. 41~42.

6) 李符永, 前揭書, p. 42.

7) 上揭書, p. 110.



〈圖3-1〉 精神의 構造



〈圖3-2〉 自己實現과 '페르조나'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rsona는 外界와의 關係에서 必要한 것인만큼 人間의 外的 性格(external personality)이라 하고 內的 性格(internal personality)은 人間의 마음 속에 存在한다. 이것을 Jung은 마음(Seele; 精神, 靈魂, 心)이라 부르면서 性에 따라 內的 性格特性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 男性의 Seele를 anima, 女性의 Seele를 animus라 했다. 外的 性格이, 自我가 外界와의 關係를 맺도록 하는 媒介體라고 한다면, 內的 性格은 自我로 하여금 無意識에 눈을 돌리게 하는 重要한 橋梁役割을 한다.

無意識이란 Freud의 主張과 같이 意識에서부터 抑壓되어서 생긴 것만으로 構成되는 것이 아니다. 無意識에는 일단 意識되었던 것이 抑壓되어서 이루어졌거나, 抑壓作用이 없이 단순히 忘却되었거나, 意識에서 주는 影響이 매우 미약해서 미처 意識되지 못한 모순된 心理的 內容으로 이루어지는 層이 있는가 하면, 生得的으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意識의 認識을 못한 채 精神活動에 큰 影響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前者는 環境의 要因으로 形成되며 個人差가 있다고 해서 個人無意識이라 부르며, 後者는 先天的으로 存在하고 時空을 超越해서 모든 人間에 普遍性을 띠고 있다고 해서 集團無意識(普遍無意識)이라 부른다. (圖3-1參照)

意識의 中心으로서의 自我는 全精神中 覺醒된 부분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個人의 全體를 總括하고 自覺하려면 無意識的인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意識化過程이 必要하다.(圖3-2參照).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부딪치는 無意識의 內容은 「그림자」(shadow, Schatten)이다. 이는 自我意識中 無意識的인 부분을 말함이니 곧 自我의 일부분이다. 「그림자」 다음에는 마음(Seele; anima, animus)의



意識化가 뒤따른다. 이리하여 人間은 自己實現(個性化)을 하게 된다. 이는 곧 全體의 性格實現을 뜻하며 自己實現의 可能性을 生得的으로 지니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圖3-2參照).

이와 같이 自己全體를 實現化하는 能力이 無意識의 밑바닥에 있으며, 無意識은 그 根源的인 全體에의 指向性으로 말미암아 意識에 作用하여 意識으로 하여금 無意識的인 內容을 自覺하도록 한다.

## 2) 意識構造의 意義

意識構造의 意義나 特徵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學術的으로 體系 있게 究明되어 있지 않다.

· 心理學에서 사용되는 意識(consciousness)이란 概念은 Freud가 人間の 精神을 意識界(consciousness)·前(下)意識界(subconsciousness)·無意識(unconsciousness)으로 區分한 데서 由來한다. 19세기 중엽 W. Wundt와 W. James에 의해 수립된 意識心理學(構成主義心理學) 方法에 의하여 知·情·意로 分析하고 다시 知는 感覺·知覺·思考·記憶·想像 등으로, 情은 感情·情緒·情操로, 意는 本能·意志 등의 要素를 포함하는 心理的 過程을 통칭하는 意味로 쓰인다.<sup>8)</sup>

黃禎奎는 意識構造를 個人이 事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思考方向으로 定義하고, 意識構造를 認知的, 情意的 構造로 區分하여 認知的 構造 속에는 知覺·思考를 포함하고, 情意的 構造 속에는 態度·價值觀·自我概念·道德性·精神健康·願望隔差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sup>9)</sup> 또한 우리가 意識構造라는 概念을 使用할 때는 주로 情意的 構造를 強調하며 그 가운데서도 價值觀과 自我概念이 重要內容으로 認定하고 있다. 李永鎬는 “意識은 現實에 대한 認識이며 實際 行動의 規範이 되는 것”<sup>10)</sup>으로 定義하고 있으며, 李載昌 등은 靑少年의 意識構造의 概念을 靑少年의 行動에 影響을 미치는 價值·認識과 이들의 不一致에서 惹起되는 葛藤으로 인한 願望隔差·剝奪感·疎外感 등의 問題惹起性向과

8) 李相魯, 《敎養心理》, 嶺南心理學會, 1980, p. 8.

9) 黃禎奎, 《韓國學生의 價值觀》, 高麗大學校 敎育問題研究所, 1979.

10) 李永鎬, 《韓國人의 價值觀》, 一志閣, 1977.

이들 問題解決方法으로 靑少年들이 취하게 되는 具體的 行動의 原因이 되는 態度<sup>11)</sup> 등을 포함하는 包括的 概念으로 보고 있다.

이상 여러 概念을 綜合해 보면 意識構造란 한 가지로 統一된 見解는 없지만 日常生活을 통해서 成長, 發達하면서 習得되는 價値·態度·認識·知覺 등을 포함한 行動準則에 대하여 個人이 지니고 있는 比較的 永續性·一貫性을 띤 行動傾向性이라 할 수 있다.

價値觀은 가장 많은 意識內容으로 취급하는 傾向이며, 때로는 價値觀을 意識構造와 같은 概念으로 보기도 할 정도다. 그러나 價値觀은 個人的 行動樣式과 存在認識을 포함하기 때문에 價値觀만을 가지고 意識構造라고 보기에는 不充分하다. 따라서 意識構造에는 價値觀과 態度 뿐만 아니라 現實認識·價値觀과 現實認識間의 葛藤으로 인한 frustration 등과 같은 問題惹起性向도 포함시키는 것이 人間の 行動 및 行動傾向性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本研究에서는 意識構造의 概念을 性格概念 속에 포함시켜 包括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2. 性格의 意義

性格(personality)이란 用語는 日常生活에서 흔히 쓰이는 말이며, 學術的인 用語도 多様하고 學者마다 見解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性格은 先天的인 면이 있는 同時에 環境的인 면도 있어, 이들이 相互作用에 의해서 形成되고 發達한다는 데는 異論이 없다.

이제 personality<sup>12)</sup>의 定義를 두 가지 側面에서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精神, 物理學的 體系로 본 定義

이 見解는 S. Freud, K. Lewin, G.W.Allport 등에 의해 代表되는 定義다.

11) 李載昌外, 《靑少年意識構造 및 形成背景》, 韓國教育開發院, 1983, pp. 23~24.

12) personality란 性格·人性·個性·性品 등 여러 가지 用語로 쓰이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性格이란 用語로 統一한다.

이들은 生物學 및 心理學에 依存해서 性格理論을 밝히려 했다.

Freud는 性格을 ID와 Ego, 그리고 Super-ego의 力動的 關係 속에서 說明하고 있으며,

G.W.Allport는 “性格이란 그 環境에 대하여 獨特한 方法으로 適應하려는 個人의 心理的, 生理的 體系(精神, 物理的 體系) 內의 力動的 組織이다<sup>13)</sup>” 라고 定義하고 있다.

이 定義를 分析해 보면 ① 性格은 身體와 精神의 統合으로서, 精神·物理的 體系를 유지하고 있는 存在이고, ② 個人의 身體的 또는 精神的 傾向이나 反應 등의 단순한 統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全一的 統合을 뜻하며, ③ 항상 動的인 發展과 變化를 하며, ④ 性格은 엄밀하게 말해서 단순한 行動이나 活動 그 自體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個個의 活動을 規定하는 傾向성을 意味하는 면이 더 많은 것이다. 또한 Allport는 個人의 反應을 決定짓는 要素가 되는 特性(trait)을 重視하였는데 이 特性은 各個人의 特殊한 神經, 心理的 體系이며, 實際 適應行動을 決定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性格은 適應樣式이라 할 수 있다.

## (2) 物理·社會的 體系로 본 定義

性格을 精神·物理的 體系로 보는 見解에 對立해서 社會的 規定을 強調하는 學者中, A. Adler, J. P. Guilford, M. A. May 등은 代表의 人物이다. May는 “性格은 他人에게 어떤 印象을 주는 것, 또는 他人에게 어떤 影響을 주는 것, 心理的 用語를 쓴다면 사람의 社會的 刺戟價値다<sup>14)</sup>”라고 定義를 내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性格을 定義하는 데 있어서는 精神·物理的 體系, 즉 生物·心理學的 見解에서는 遺傳的 基礎가 重視되며, 生物·社會學的 見解에서는 環境에 의한 性格形成이 重要視되고 있는데, 最近 學界의 傾向을 보면 社會學的인 見解에서 性格問題를 취급하는 것이 支配的인 傾向이다.

13) 城戶幡太郎編, 《體系教育心理辭典》, 1954, p. 127.

14) 曹恩淑, 《教育心理學》, 載東文化社, 1978, p. 180.

### 3. 性格形成의 背景要因

性格形成要因에는 遺傳의인 면과 環境要因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本研究에서는 環境的 背景要因만을 다루기로 한다.

#### 1) 家庭環境 要因

家庭은 社會過程中, 가장 重要的 場이라 할 수 있다. 幼兒의 社會化 過程에서 個人的 基礎的인 行動樣式이나 習慣, 그리고 意識構造를 形成하는 매우 重要的 場이 家庭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Freud는 性格形成에 있어서 乳·幼兒期의 모든 體驗이 重要하다 하였고, Bloom(1964)도 情意的 特性뿐만 아니라 4才까지 成人 知能의 약 50%가 發達한다고 했으며, Kardiner는 父母의 養育方法이 基本的 性格要素로 크게 影響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精神分析學者들도 基本性格은 약 5才까지 거의 核心이 決定된다는 주장 등은 모두 人生 初期의 家庭教育, 즉 家庭環境의 重要性을 強調하는 말이다.

그러면 家庭環境이 性格形成에 影響을 주는 直·間接的인 면으로 區分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 直接的 影響

家庭은 父母·兄弟·姊妹와의 人間關係를 통하여 性格形成에 直接的인 影響을 주고 있다. 이 중 父母의 訓練이나 養育方式은 특히 支配的인 役割을 한다. 한 文化圈 속의 父母들의 訓練에 의해서 그 文化에 所屬되는 成員의 基礎的인 性格의 틀을 形成해 가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Allport(1961)<sup>15)</sup>는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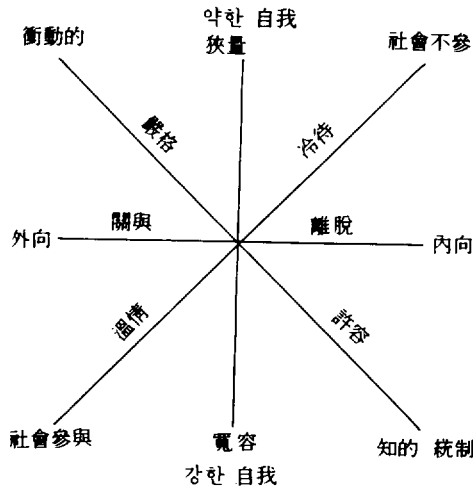
- ① 文化的 傳統은 父母가 子女를 가르칠 敎訓과 敎訓을 주는 方式을 決定해 준다.
- ② 文化가 달라지면 子女에 대한 敎訓과 訓育方式도 달라진다.
- ③ 子女들의 初期經驗은 性格에 永續的인 影響을 끼친다.

15) G. W. Allport, *Pattern and Growth Personality*, No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1, p.184.

④ 한 文化 속에서의 類似한 經驗은 類似한 性格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文化的 傳統이 子女訓育方式을 決定해 주고, 訓育方式은 基本的 性格型을 形成해 주며, 成人의 基本的 性格은 다시 文化的 傳統을 만들어 준다는 盾環的 意味를 示唆해 주는 것이다.

父母-子女 關係의 影響을 Slater(1962)<sup>16)</sup>가 整理한 것을 보면 <圖-4>와 같다.



<圖-4> 부모-자녀관계가 人성형태에 주는 영향

<圖-4>에서 보는 바와 같이 父母의 訓育方式을 몇 개의 次元으로 分類해서, 各次元의 兩極으로 갈수록 對照的인 性格形態가 形成된다는 것이다.

한편 Becker(1964)<sup>17)</sup>는 溫情-敵對感의 次元과, 制限-許容의 두 次元을 想定해서, 이 4극이 相互作用으로 造成되는 性格形態를 다음의 <表1>과 같이 提示했다.

16) P.E.Slater, *Parental Behavior and in Personality of the Child*, Journal of Genet Psychology, 1962, 101, pp.53~69.

17) N.C.Becker, *Consequences of De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L.Hoffman and L.W.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64, pp.169~208.

〈表-1〉 溫情 대 敵對와 制限 대 許容의 相互作用結果

溫情 대 敵對 / 制限 대 許容	制限	許容
溫情	순종적, 의존적, 예의바름, 갈끔함, 복종적 (Levy) 최소의 공격 (Sears) 최대의 규칙강화, 소년(Maccoby) 의존적, 비우호적, 비창의적 (Watson) 최대의 맹종 (Meyers)	활동적, 사회적 참여, 창의적, 성공적인 공격성 (Baldwin) 최소의 규칙강화, 소년(Maccoby) 성인의 역할 수임의 촉진 (Lewin) 최소의 자기공격, 소년(Sears) 독립적, 우호적, 창의적, 낮은 투 사적 적대감 (Watson)
敵對	“신경증적”문제 (임상적 연구) 또래와 빈번한 다툼, 수줍어함 (Watson) 사회적인 후퇴 (Baldwin) 성인의 역할 수임의 저조(Lewin) 최고의 自己攻擊, 소년 (Sears)	非行 (Gluecks, Bandura, Walters) 추종치 없음 (Meyers) 최대의 공격성 (Sears)

〈表-1〉에서 示唆한 점은 父母의 여러 行動形態가 相互作用해서 子女들의 性格形成에 影響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2) 間接的 影響

家庭은 家族들이 共同生活을 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影響을 준다. 家族中, 强者로 군림한다든지 羨望의 대상이 되는 存在는 어린이들에게 은연 중에 行動模型을 제공하게 된다. 이런 模型은 同一視나 模倣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強力한 影響을 미치게 된다. 幼兒期에는 대부분 父母나 年上의 家族中에서, 특히 情緒적으로 밀접한 關聯이 있는 사람을 同一視의 對象으로 삼는다는 데서 家族環境의 意義는 크다고 하겠다.

또 하나의 間接的 影響은 家族들이 提供하는 「反映된 自己像」이다. 家族이라는 거울 속에 비춰진 自己像은 暫定的의 自我概念을 形成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自己像은 父母가 말해 주거나 行動으로 보여 주는 면도 있지만, 父母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心理的 力動性和 關係된다는 데서도 意義가 있다.

## 2) 文化的 要因

文化는 社會成員의 한 個人이 出生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어떤 經驗을 겪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性格形成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文化는 여러 가지 行動樣式을 포함해, 日常生活에서 當面하는 問題들을 解決하는 方法들이 內包되고 있으며, 社會全體로서 安定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機能임을 알고 있다. 즉 우리는 한 文化가 마련해 준 行動樣式을 가지고 日常生活上の 問題들을 解決하고 있으며, 한 社會는 文化라는 機能에 의해서 安定되고 全體의인 統一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 社會는 여러 가지 行動樣式을 制度化, 價例化해서 構成員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強要化함으로써 쉽게 學習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社會에서 價例化한 行動樣式中 性格形成에 크게 영향을 끼친 背景要因이 儒敎 및 佛敎文化라 하겠다. 仁義禮智의 四端思想에 基因한 五倫을 實踐道德의 基本으로 認定하게 되었으며, 不殺生·不偷盜·不邪淫·不飲酒·不妄語 등의 三歸五戒가 그들의 生活哲學이라 하겠다. 그 중 우리 濟州先民들은 親子間·夫婦間·男女間·長幼間·親友間 등의 態度 및 行動樣式이 그들의 性格形成에 크게 기여했음이 當然했다고 보아진다. 이와 같은 文化的 影響力을 先民들의 欲求나 欲求充足의 方法, 他人과의 關係, 自我概念, 그리고 frustration 과 그 解消方法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生과 死의 對處方法·喜悲·健康과 疾病 등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도 영향을 준다.

Kluckhohn(1955)에 의하면 어떤 文化에 있어서나 사람들은 基本的 問題에 當面하게 되고, 各社會는 人間의 當面問題들을 解決하는데 關係되는 支配的 價値體制를 갖게 되는데, 이를 다음의 <表-2>와 같이 提示하고 있다.<sup>18)</sup>

18) 尹熙峻, 《人性心理入門》, 敎育出版社, 1977, p.151.

〈表-2〉 人間問題와 支配的 價値體制

先天的 人間本能	惡	中間, 善과 惡의 혼합	善
	變化—不變	變化—不變	變化—不變
人間의 對自然 또는 超自然 關係	自然에의 예속	自然과의 調和	自然을 支配
時 間 焦 點	過 去	現 在	未 來
人間活動 樣相	存在 (being) (자동적표현 無 發達的)	生成 속의 存在 (being-in-becoming) (自我의 現實)	行動(doing) (活動, 成就)
他人과의 關係樣 相	直線的 (家庭目標)	平行的(集團目標)	個人的 (個人目標)

### 3) 風土의 要因

風土란 한 地域의 氣候·地形·地味 등을 총칭한 包括的 概念이다. 地理的인 環境뿐만 아니라 心理的 主觀과 物理的 客觀과를 합쳤을 때 말한다. 즉 한서·가뭄·장마·바람·山水·田野·家屋 등과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情緒的 影響 등을 총칭한 말이다. 이런 風土의 否定的 刺戟들을 對處해 나가는 過程에서 意識 내지 性格形成의 背景要因이 되는 것이다.

濟州島는 氣候적으로 볼 때, 韓國의 最南端에 位置하고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海洋性氣溫으로 비교적 선선한 편이지만 거친 비바람·土壤(住居地域의 大部分이 火山灰土 및 非火山灰土임)과 旱魃로 農業生産性이 低所得을 면치 못하는 原因이 되어진다고 본다.

여름철 洪水가 잦은 것은 필리핀 東南部에서 불어오는 颱風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暴風雨·洪水는 물론 農作物에 큰 피해를 가져오며 특히 9월경 內襲하는 颱風은 심한 피해를 입는다.<sup>19)</sup>

우리나라는 中國·日本과 같이 季節風(Monsoon) 地域에 속하고 있어 여름철

19) 中村 元, 《東洋의 思惟方法》, 卷3, 春秋社, p. 325.



熱帶의 大洋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심한 더위 혹은 颱風·暴雨로 인한 피해가 심하고, 겨울철의 北西風은 심한 추위를 가져온다.

和辻哲郎은 暴風·暴雨·洪水·한발은 무서운 힘으로 人間을 엄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對抗을 斷念시키고 無力化시키고야 한다. 따라서 사람을 忍從의 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sup>20)</sup>

특히 暑熱과 濕氣를 條件으로 하여 草木들은 여름 한철 자라면서 生의 充滿을 상징함에 반하여 人間은 死와 같은 無力한 存在로서 自然을 대하는 態度가 反抗的·攻擊的이기보다 受容的·屈服的·忍從的이라고 볼 수 있다. 一般의 으로 Monsoon地域의 사람들은 受容的·忍從的으로 파악하는 傾向이 농후하고, 沙漠地域의 住民들은 能動的·攻擊的·征服的 性格이 강하다고 한다.

濟州島의 颱風 來襲을 綜合的으로 考察해 보면 6~7月에는 頻度가 적고 強度도 약하여 季節風이 강하게 부는 濟州地域으로서는 그렇게 큰 問題가 안 되나 8~9月에 來襲하는 颱風은 頻度도 많고 強度도 심하여 農作物이나 住民生活에 상당한 被害를 주고 있다.<sup>21)</sup>

이런 見地에서 濟州島民性에는 Monsoon的인 受容性·服從性·強忍性 등과 沙漠的인 反抗性·攻擊性·開拓性이 聯關되어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진다. 즉 거칠은 風土에 대한 低抗的·征服的·開拓的인 性格은 未來 指向的 價値觀의 形成에 기여하여 故鄉을 등지게 했으며(특히 山東과 山西地域) 自然風土와의 挑戰에서 敗北는 萬事를 宿命으로 받아들이는 受容性·順從性·強忍性을 形成하는 要因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의 感情이 몹시 銳敏하고 섬세하면서도 그대로 表現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儒敎文化의 영향도 있지만, 風土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反抗 攻擊的 傾向이 간절하면서도 諦念·斷念·宿命으로 돌려 버리는 性格으로 화한 것은 이런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예컨대 暴風雨가 지나간 뒤의 代播作業·家屋修理, 그리고 무더운 여름철의 김매기 작업, 바다에서의 漁勞作業 등 지긋지긋한 生活場面에서도 강한 忍耐力으로 묵묵히 順從해야만 하는 意識構造는 濟州風土의 要因이 分明하다고 보아진다.

20) 尹泰林, 《韓國人の 性格》, 現代教育出版社, 1977, p.115.

21) 南仁熙, 《濟州農業의 百年》, 泰和印刷社, 1985, p.14.

#### 4) 役割-期待要因

한 社會가 强要하는 行動樣式으로 役割을 無視할 수 없다. 이것 또한 社會的 壓力과 社會的 期待에 의해 形成되는 것으로 性格形成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役割이란 한 集團內에서 어떤 特定地位를 갖는 個人에게 社會가 期待하는 것으로, 社會生活에 있어 構造化된 參加의 樣式이라 하겠다. 이 樣式은 그 個人이 所屬하고 있는 集團에서 占有하는 地位에 따라 달라진다. 한 家庭에서는 父親에게 期待하는 役割이 있는가 하면 母親·子女·長子·男兒·女兒 등 그 나름대로의 役割이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役割이 相互作用하여 하나의 家庭社會의 體制를 形成해 간다.

Allport는 役割概念과 personality와의 關係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sup>22)</sup>

##### (1) 役割-期待

役割-期待는 社會體制 속에서 정해지는데는 것이다. 이는 한 社會의 文化가 社會成員에 대해서 애당초 規定해 놓은 行動規則이라 할 수 있다. 그 社會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地位를 占有하는 構成員에 대해서 一定한 行動을 하여 주기를 期待하는 것이다.

##### (2) 役割-概念

한 社會의 成員은 그 社會가 自己에게 무엇을 期待하고 있는가를 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役割-概念이란 自己自身에 대해서 무엇을 期待하고 있는가를 뜻한다. 그 役割을 自己 나름대로의 方式으로 定義한다. 예컨대 어떤 教師는 靑少年들의 生活指導方式은 指示的 方法이나 一罰百戒主義가 바람직하다고 믿는 反面, 皮相的 自己(self-concept)에서 탈피해서 理想我(ideal-self)를 찾도록 助力하는 自我概念의 確立에 力點을 둔 非指示的 方法을 주장한다. 이와 같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期待가 役割-概念이다.

##### (3) 役割-受容

사람들은 役割이 他人의 期待에 의해서 定義되든, 自身の 概念에 의해서 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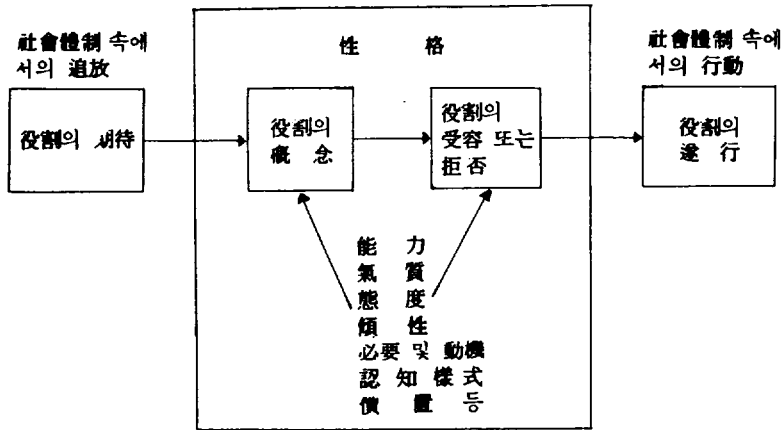
22) G. W. Allport, op.cit., pp.184~185.

義되든간에 自身の 役割을 受容 또는 拒否한다. 때로는 矛盾撞着되어 役割葛藤을 초래하기도 한다.

(4) 役割-遂行

個人이 直接 役割을 實踐하는 면이다. 役割期待는 미래 規定되지만 遂行에는 差異가 생긴다. 그 差 때문에 役割遂行에 變化를 초래하게 함은 물론 性格特性에 影響을 끼치게 된다.

위와 같은 役割과 性格과의 關係를 圖解하면 <圖-5>와 같다.



<圖-5> 役割의 概念

위 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役割은 社會的 壓力으로서 個人的 性格에 作用하며 性格의 일부로서 受容되고 意味가 생겨 個人的 行動遂行에 影響을 주는 要因이 된다.

(5) 社會階層 要因(經濟的 要因)

한 社會는 家庭의 經濟, 社會的 地位에 따라 몇 가지 階層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各階層別로 文化的인 差異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階層間的 文化的 差異는 그 속에서 生活하는 成員들의 行動樣式에도 差異가 난다. 이러한 差異는 性格形成에도 자기 다른 影響을 끼치게 된다. 結果的으로 各 階層은 자기 색다른

心理的 特徵을 갖게 되고, 또한 그 나름대로의 適應 패턴을 지니게 된다.

D. Riesman(1950)은 變動하는 美國 社會의 文化的 階層의 影響이 美國人의 性格을 決定지어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은 性格構造의 한 부분으로, 그들의 社會的 性格을, ① 傳統指向型, ② 內的 指向型, ③ 他人指向型으로 分類하고 있다.<sup>23)</sup>

또한 Hollingshead와 Redlich(1958)의 研究에 의하면 社會的 文化的 條件이 階層에 따라서 다른 種類의 精神疾患을 일으키고 있다. 下層階級에서는 精神分裂症患者가 많고, 上層階級에서는 精神神經症患者가 많은 편이며, 行動表現도 患者의 階層에 따라 달리 表現하고 있다<sup>24)</sup>고 한다.

이와 같은 研究 結果는 社會的 階層이 性格形成에 間接的으로 影響을 끼치고 있음을 示唆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 (6) 政治的 要因(官員의 虐待)

現代人의 意識構造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要因으로는 政治的 環境, 政治文化, 政治參與, 政治統合, 政治制度 등을 들 수 있지만, 濟州先民의 意識構造에 影響을 끼친 要因으로는 주로 官員들의 住民들에 대한 加虐的 行動, 剝奪, 榨取 등 官吏들의 惡用을 들 수 있다.

Montesquieu는 “아시아에서는 노예의 정신이 支配하고 한 번도 소멸한 일이 없다”고 했으며, Hegel은 “東洋에는 自由人이란 王 하나 뿐이다. 民衆은 노예다”라고 했다. 특히 조선조에는 이런 觀念이 노골화하고, 철저하였다.

그러면 濟州先民을 政治的으로 支配하면서 性格形成에 影響을 끼친 官吏들은 어떤 性格의 所有者들이었나? 한 마디로 sadism(加虐症)的 傾向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sadism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① 사람들을 自己에게 依存시키고 그들에게 絶對的 無制限의 힘을 가하여 自己 마음대로 주무르고 道具化하려는 型이고, ② 他人을 支配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利用(exploit)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物件을 빼앗아 버리려는 型이요, ③ 他人을 괴롭히고, 그 場面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型이다. 그들은 너를 위하여 이만한 일을 했으니 나는 너에게

23) D. Riesman, *The Lonely Crowd*, Garden City, N.Y.: Doubleday, 1950.

24) A. B. Hollingshead and F. C. Redlich, *Social Class and Mental Illness*, New York: Wiley, 1958.

서 받을 權利가 있다는 식으로 擄取傾向마저 가지고 合理化하고 있는 사람들이다.<sup>25)</sup>

sadism의 本質은 다른 사람에게 苦痛을 주려는 欲求는 아니다. 그 本質은 他人을 支配하려는 것, 他人을 支配하는 데서 오는 快感이야말로 sadism의 要素이다.

따지고 보면 sadism과 權力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본다. 權力의 本質은 支配欲이요, 支配欲은 sadism의 葛藤과 同一하다 할 수 있다.

權力이란 概念 속에는 두 가지의 뜻이 內包되고 있는데 하나는 他人을 支配할 수 있는 힘이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潛在的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支配와 潛在力은 반드시 正的 相關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否的 相關일 때도 있다고 본다. 예컨대 眞正한 能力者가 支配欲이 弱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한 마디로 朝鮮朝 韓國官吏들과 日帝下의 官吏들은 支配的인 sadism的 傾向性이 농후하고 막강한 權勢를 惡用해서 백성을 抑壓, 擄取, 剝奪한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官員들의 加虐의 態度下에서, 濟州先民들의 意識構造가 生産的이고 未來指向的인 方向으로 形成될 리가 어려웠다고 본다.

### Ⅲ. 研究 方法

本研究의 目的은 濟州先民의 意識構造와 그 形成背景要因을 究明하는 데 있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濟州島民謠에 投影된 濟州先民의 適應樣式을 防禦機制·合理化機制·攻擊機制·逃避機制·其他의 패턴으로 分類하고 本島民性과 그 形成背景要因을 究明했다.

### Ⅳ. 分析 結果

性格이란 人間의 多樣한 適應樣式이며, 그 패턴에 나타나는 特性으로 構成된다는 理論에 입각해서, 濟州先民들이 生活上의 難題들을 어떤 方式으로 適

25) E. Fromm, *Escape from Freedom*, Rinehart, 1941, pp.143~144.

應하면서, 어떤 性格으로 形成되어 왔는가를 洪貞杓(1963)와 金榮敦(1977, 1983)이 수집한 濟州島民謠 180首<sup>26)</sup>를 對象으로 分析해 본 結果는 다음의 表들과 같다.

1. 全般的인 意識構造

濟州民謠에 投影된 島民意識(島民性)의 全般的인 傾向은 다음의 <表-3>과 같다.

<表-3> 全般的인 意識構造

通應型		f (%)	f (%)	計
防禦型	同一視	目標指向	30 (16.7)	40 (22.2)
		對象상실	2 (1.05)	
	補償	子女通한 補償	1 (0.6)	
		特殊能力	2 (1.05)	
昇	華	5 (2.8)		
合理化型	投射	射	2 (1.05)	57 (31.7)
	달	포도	3 (1.7)	
	곰한래몬	몬	52 (28.95)	
逃避型	孤	立	9 (5)	24 (13.3)
	抑	壓	4 (2.2)	
	退	行	4 (2.2)	
	固	著	1 (0.6)	
	處	迫觀念	6 (3.3)	
攻擊型	直接	攻擊	5 (2.8)	56 (31.1)
	間接	攻擊	44 (24.4)	
	自己	攻擊	7 (3.9)	
其他	反動	形成	3 (1.7)	3 (1.7)
合計			180(100)	180(100)

26) 洪貞杓, 《濟州島民謠解說》, 省文社, 1963, 113首, 그리고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조약돌, 1983, 67首.

위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先民들의 意識構造는 合理化型(31.7%)과 攻擊型(31.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防禦型(22.2%), 逃避型(13.3%), 反動形成 등의 順位로 나타나고 있어, 本島民의 代表的인 性格特性이 合理化機制 및 攻擊機制를 채택하고 있다 하겠다. 즉 日常生活中, 問題場面에서 發生하는 欲求不滿을 受容的, 忍從的, 宿命的 傾向을 民謠를 통해서 달랠거나 frustration을 間接的 攻擊을 통해서 해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濟州先民性의 形成背景要因으로 風土要因이 많은 영향을 끼쳤음이 명백하다. 暴雨·怒濤 등에 의한 威脅感, 順從的 態度, Monsoon 地域의 受容的, 忍從的 性格特性과, 거칠고 메마른 農地와 싸워야 하고 暑熱과 乾燥에서 오는 反抗的, 逃戰的, 開拓的인 沙漠의 特性이 混合된 性格이 濟州島性이라 하겠다.

## 2. 防禦型的 意識構造

有機體가 어떤 動機下에서 目標로 향하다가 어떤 妨害를 받거나 失敗하게 되면 內的 緊張狀態로 되는데, 이와 같이 참기 힘든 緊張狀態를 欲求挫折 혹은 欲求不滿(frustration)이라 한다.

防禦機制란 어떤 事態(situation)에서 欲求挫折되어 直接的 滿足이 不可能할 때, 直接目的을 포기해서 다른 目標에 착수함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frustration을 解消하려는 行動樣式을 말한다. 즉 環境에 대하여 自身을 保護하려는 適應樣式이라 할 수 있다.

그 중 白日夢(day-dream)은 現實界에서의 欲求不滿은, 그 狀態에서 떠나 非現實世界, 즉 空想의 世界에서 부분적으로나마 滿足을 얻는 適應樣式을 뜻하며, 同一視(identification)는 實現 不可能할 경우, 實際로 實現한 他人·集團·機構와 同一視함으로써 滿足을 얻는 適應樣式이다. 補償(compensation)은 劣等感으로 不滿이 생기는 경우, 劣等意識을 解消하기 위하여 優格特性(特技)을 과장하는 行動樣式이다. 昇華(sublimation)는 원래, 性的 어떤 興味를 非性的 興味로 바꾸는 것을 뜻하나, 廣意로는 欲求不滿時 社會的 價値 있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不滿을 解消하려는 適應樣式을 意味한다.

이와 같은 防禦機制를 利用하여 欲求不滿을 解消해온 濟州先民의 意識構造를 分析해 보면 다음의 <表-4>와 같다.

〈表-4〉防禦型에 投影된 島民意識

適 應 型		f (%)	f (%)	計
防 禦 型	同 一 視	目 標 指 向	30(16.7)	40(22.2)
		對 象 喪 失	2 (1.05)	
	補 償	子 女 同 한 補 償	1 (0.6)	
		特 殊 能 力	2 (1.25)	
昇	華	5 (2.8)		

위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防禦型에 해당되는 民謠는 分析對象中 약 22%로서 全島民意識에서 3위에 해당되는 特性이다. 그 중 同一視機制가 거의 대부분(약 17%, 32首)을 차지하고 있어 日常生活上의 不滿을 同一視機制를 통하여 解消했다는 것은 先民들의 意識構造過程으로 펴 바람직하다 하겠다. 왜냐 하면 生活上의 難關을 強忍한 意志로 克服하면서 未來指向的, 進取的, 開拓精神의 함양에 기여하는 契機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目標指向的 同一視機制를 통하여 frustration을 解消하면서 즐겨 부르던 民謠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산 앞엔 당 오백 베풀고  
저 산 앞엔 절 오백 베풀고  
절 오백과 당 오백 사이에  
五百將君 절 구경 간다<sup>27)</sup>

이는 푸른 漢拏山이 濟州先民들에게 준 生氣·活力·自信心·溫柔性·親密性, 그리고 現實的·經濟的·積極的·生産的이며 未來指向的인 性格 特性을 잘 表現해 주는 民謠라 하겠다. (目標指向的 同一視의 適應機制라 할 수 있다.)

「홀어머의 아들」

홀어머니의 아들이라도

27)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 조약돌, 1983, p. 60.



아름 가득 書冊을 끼어안고  
 한푼에 가득찬 붓을 뒤어서  
 일천장이나 되는 벼루랑 가져서  
 삼천장이나 되는 먹을 갈아서  
 八道萬國을 헤아리면서  
 나라의 숨을 맡으러 간다

이는 편모슬하에 있는 子息에 대한 勉學歌인 것이다. 寡婦의 子息인들 어찌 큰 希望과 抱負가 없을소냐. 父親의 遺志대로 장래 靑史에 빛나는 偉人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찍 아버를 여윈 들도 없는 어린 子息에게 간절히 勉學을 說諭한다. 學問하여 선비가 되는 것은 아버 있는 儒林의 子息들만이 할 것이더냐, 비록 보잘 것 없는 홀어머니의 子息일망정 부지런히 學問을 연마하여 선비가 되기를 바라는<sup>28)</sup> 즉 母親의 立場에서는 父親이 이루지 못한 일을 그의 遺志를 받들어 훌륭한 선비가 되어달라는 子女를 통한 補償이며, 子息側面에서는 父親의 遺志를 받들어 이루어 보겠다는 意志와 自信感이 內包되어 있는 未來指向的이며, 目標指向的 同一視의 性格特性이 담겨 있는 民謠라 하겠다.

### 3. 合理化型의 意識構造

合理化機制란 社會的으로 認定을 받지 못해서 frustration이 發生했을 경우, 社會的으로 承認을 받지 못한 自己의 行爲에 대하여 認定을 받을 수 있는 理由를 發見하거나 行動함으로써 不滿을 解消해 버리려는 適應樣式인 것이다.

投射(projection)는 所望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frustration이 發生하는 경우에, 失敗의 原因을 外部로 돌림으로써 緊張이나 不安을 解消시키는 心理機制이고, 신포도(sour grapes)는 무엇을 達成하고자 하다가 失敗했을 경우에 自己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다고 辯明함으로써 不滿을 解消하려는 適應樣式이며, 달콤한 레몬(sweet lemon)은 신포도와 正反對概念으로, 失敗時에 現在의 結果가 바로 내가 원했던 것이라고 辯明하면서 不滿을 解消하는 適應機制이다.

28) 洪貞杓, 《濟州島民謠解說》, 省文社, p. 253.

이제 合理化機制를 통해서 欲求不滿을 解消해온 濟州先民의 意識構造를 考察해 보면 다음의 <表-5>와 같다.

<表-5> 合理化型에 投影된 島民意識

適 應 型		f (%)		f (%)	N
		射	도		
合 理 化 型	投			2 (1.05)	57(31.7)
	신	포	도	3 (1.7)	
	달	콤	한	레	

위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合理化機制에 나타난 先民意識은 sweet lemon이 약 29%(57首中 52首)로서, 日常生活에서 發生하는 欲求不滿을 거의 달콤한 레몬으로 解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暴風雨와 怒濤, 季節風 등 風土의 영향을 받고 形成되는 性格特性인 만사를 宿命論的으로 判斷해 버리는 受容性·強忍性·服從性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즉 만사를 八字所關으로 認定해 버리는 思考方式이 濟州先民性의 特徵으로 定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제 合理化機制를 잘 反映시킨 民謠 몇 首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바람일랑 밥으로 먹고  
구름으로 똥을 싸고  
물결일랑 집안 삼아  
젊은 어머니 메어두고  
젊은 아버지 메어두고  
부모동생 이별하고  
한강바다 집을 삼아  
이 업을 하라 하고  
이 내몸이 탄생하던가<sup>29)</sup>

불쌍하고 가난한 父母兄弟를 離別하고 出他한 海女가 鄉愁를 달래려는 心情에서 부른 노래이다. 그리운 父母兄弟를 고향에 두고 온 海女가 바다를 집으로

29)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 조약돌, 1983, p.105. 달콤한 레몬의 適應樣相이 잘 表現된 民謠라 할 수 있다.

삼아 바람을 밥으로 먹고 구름똥을 싸가며 그야말로 饑餓貯蓄 生活을 해야만 하는 고된 海女作業을 타고난 四柱八字所關으로 돌려 버림으로써 不滿을 解消하는 性格特性으로 定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나무도 팔자」

나무도 八字 좋다는 나무는  
觀德亭의 대들보 매어 놓아  
一千선비의 절을 받고 있더라  
나무도 八字가 꺾은 나무는  
길가 집에 디딤판으로 놓고서  
가고 오는 官房과 官屬들의  
발길에 놓고 있더라

運命論者中에 사람의 運命은 四柱八字에 달려 있다고 한다. 좋은 八字를 타고난 나무는 觀德亭의 대들보로 有用하게 되니 선비들의 절을 받게 되나 八字가 나쁜 나무이기에 길가의 大門前의 발판으로 깔아놓고 오가는 官員의 발길에 짓밟히고 있는 것일까. 험한 八字를 지니고 태어난 唱婦를 두고 나무에 投射시켜 부른 노래다.<sup>30)</sup>

#### 4. 逃避型의 意識構造

逃避機制란 欲求不滿의 事態에서 回避해 버림으로써 不滿을 解消하는 適應樣式인 것이다.

孤立(isolation)은 frustration이 發生했을 때에 他人과의 接觸을 피하고 自己의 內的 世界에 틀어박혀 現實의 抑壓으로부터 回避함으로써 滿足을 얻으려는 適應樣式이요, 抑壓(repression)은 現實的으로 容納될 수 없는 欲求가 意識에 나타나지 않도록 無意識世界로 몰아 넣어 버림으로써 一時的 緊張, 不安을 解消하는 適應樣式이며, 退行(regression)은 現實이 복잡하고 곤란한 事態에 적응할

30) 洪貞杓, 前掲書, p.186. 달콤한 레몬의 適應樣相이 잘 反映된 民謠라 할 수 있다.

능력이 없다고 自認해서 옛시절로 되돌아가 버림으로써 一時的 滿足을 企圖하는 適應樣式이다. 固着(fixation)은 前途에 위험이나 곤란이 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의 段階로 前進을 두려워하여 發展的 現實에서 逃避해서 그대로 머물러 버리는 適應方式이며, 強迫觀念(obsession)은 不合理하고 無價値하다고 認定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觀念이나 行動이 끈기 있게 反復되는 行動樣式이다.

이제 逃避機制를 使用하면서 frustration을 解消해 온 意識構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6〉 逃避型에 投射된 島民意識

通 應 型		f (%)		f (%)	T
		孤 立	抑 壓		
逃 避 型	孤 立			9(5)	24(13.3)
	抑 壓			4(2.2)	
	退 行			4(2.2)	
	固 着			1(0.6)	
	強 迫 觀 念			6(3.3)	

〈表-6〉에서 보는 바와 같이 逃避型에 나타난 濟州先民意識의 一面을 살펴 보면 全適應機制中, 最下位(13%)에 머물고 있어 本道民들은 欲求不滿의 事態에서 回避함으로써 安定을 유지하려는 傾向은 회박한 傾向으로 나타나고 있어, 意識構造 形成過程이 바람직한 편이라 할 수 있다. 逃避型中, 孤立(全適應機制中 5%)이 제일 많고 다음이 強迫觀念, 抑壓 및 退行的 順位로 나타나고 있어 欲求不滿時 이 適應機制를 使用하는 경우는 극히 적은 편이며, 그것도 孤立 또는 強迫觀念 및 行爲에 依存하는 傾向임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이 機制가 投射된 代表的인 民謠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노래」

나 노래여 산이나 넘어가라  
 나 노래여 물이나 넘어가라  
 물넘은 곳에는 아버님이 살고

山넘은 곳에는 어머니가 산다  
물도 산도 넘지 말고서  
요 앞집 大門턱이나 넘어가려무나

이 民謠는 아무 의지할 곳 없는 二八處女의 身勢를 慰勞하면서 부르던 노래다. 철 없는 어린 時節에는 아무 생각이 없더니 成長하면서부터 몰래 이 노래를 부르게 된 自己의 情懷를 홀로 느끼는 것이다. 이 處女의 경우는 유달리 悲哀와 孤獨을 풀 수 없는 가련한 環境과 處地인 것이지만<sup>31)</sup> 이 民謠를 부르면서 일시나마 自慰하다 보니 本島民性의 特徵中の 일부분을 占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부」

가을 메뚜기도 조나무를 안지만  
우리 팔자 얼마나 하여  
안을 사람 없더라 한다<sup>32)</sup>

「외로움」

나거들랑 삼형제 나라  
나거들랑 사형제 나라  
외나무라 외동백 열듯  
외로이 난 일 서러워한다<sup>33)</sup>

위 두 首의 民謠는 모두 日常生活에서 發生하는 欲求不滿을 孤獨으로 달래려는 島民意識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사랑 노래」

꿈아 꿈아 이내 꿈아  
무정하신 꿈이로구나  
오신 님을 보냈구나

31) 上揭書, p.182. 孤立의 適應型이 잘 表現된 民謠라 할 수 있다.

32) 金榮教,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77, p.149.

33) 上揭書, p.155.

또다시 오거들랑  
 입을 잡고 나를 깨워라<sup>34)</sup>

이 民謠는 돌아가신 입을 생각하는 것이 하등의 必要도 없고 不合理함을 自認하면서도 끈질기게 입 생각이 뇌리에 固着돼 있어서 그나마 꿈에서까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強迫的인 島民性의 일면을 엿보여주고 있다.

### 5. 攻擊型의 意識構造

攻擊機制란 欲求不滿의 원인이 되는 사람이나 事物에 대하여 對抗的, 挑戰的, 進取的, 開拓的, 未來指向의 態度를 취하거나 行動을 함으로써 不滿을 解消시키는 性格型으로서, 攻擊對象이 自己自身일 경우에는 自己攻擊, 欲求不滿의 원인이 되는 對象일 경우에는 直接攻擊, 對상을 直接攻擊할 수 없을 경우에는 間接攻擊의 樣相으로 나타난다.

이제 逃避機制를 사용하면서 frustration을 解消해온 意識構造를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7〉 攻擊型에 投射된 島民意識

適 應 型		f (%)		f (%)	T
		直接	間接		
攻 擊 型	直 接 攻 擊			5 (2.8)	56 (31.1)
	間 接 攻 擊			44 (24.4)	
	自 己 攻 擊			7 (3.9)	
其 他	反 動 形 成			3 (1.7)	3 (1.7)
合 計				180(100)	180(100)

위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攻擊型으로 나타난 島民意識을 고찰해 보면 全島民의 性格特性中 合理型(약 32%)과 함께 약 31%를 占有하고 있어 우리 先民들의 意識構造도 合理性 및 攻擊性으로 構成됐다고 볼 수 있다. 즉 島民들의 意

34) 金榮敦, 前掲書, p. 254.

識은 對抗的, 挑戰的, 進取的, 開拓的, 未來指向的 傾向이 농후함을 엿볼 수 있어 꺾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機制中 間接攻擊型이 全島民性中 24%로서 제일 많고, 다음으로 自己攻擊, 直接攻擊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濟州先民들이 日常生活場面에서의 欲求不滿을 合理的, 攻擊的 思考方法으로 解消하고 있으며 後者를 택할 경우에는 社會的으로 認定받을 수 있는 間接 및 自己攻擊에 依存하고 있어 꺾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제 間接攻擊의 樣相으로 나타난 民謠 몇 首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누이」

시누이야 시집 거드름을 말아라  
너도 가면 시집에 갈게 아니냐  
나도 가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다  
백년을 지낸 데도 매맞겠느냐  
너의 집에 千石이 있기로  
千石을 보고 내 아니 왔고  
너의 집에 萬石이 있다가로  
萬石을 보아서 내 아니 왔다  
너 오래비의 惡緣의 꽃이 피어 왔지  
너 집의 大門을 어디라고 오겠느냐<sup>35)</sup>

이는 머느리가 시누이의 구박에 對한 間接攻擊을 잘 나타내는 노래라 하겠다.

「시집 家族」

시집이라 왔다고 하니  
시아버지는 소라 같이  
이만 성깃성깃 하고  
시어머니는 전복같이  
찌무룩하여 미워만 뵈고  
시누이는 용치놀래기 같이  
이리 호로록 저리 호로록<sup>36)</sup>

35) 洪貞杓, 前揭書, p. 176.

36) 金榮敦, 前揭書, p. 115.

이 民謠는 며누리가 시집의 虐待에 대해서 시아버지를 소라로, 시어머니를 전복, 시누이를 용치놀래기로 비유해서 間接攻擊의 形式으로 부른 노래다.

「물이 엇전」

물이 없거든 山地물 먹고  
나무가 없거든 동백나무라도 때어라  
나 없이 지내어 보아라  
남의 子息도 한빛이란다  
남의 자식은 千葉의 뚱이더나  
휘둘러 잡고 긴 호령 말아라  
내려 앉아서 들을 년 없다<sup>37)</sup>

이 民謠는 본남편의 子息을 데리고 改嫁해 온 婦人이 現男便의 殘忍性에 대한 間接攻擊의 形式으로 부른 노래다.

「구관」

舊官이라고 해롭게 말하지 말고  
新官이라고 기리지도 말아라  
山地 생물을 사흘을 먹고 나니  
元의 公事 한 公事란다<sup>38)</sup>

이 民謠는 官僚에 대한 間接攻擊에서 우러나온 노래다.

## V. 意識構造의 形成背景 要因

### 1. 全般的인 形成背景 要因

濟州先民의 意識構造 形成背景 要因은 家庭要因, 文化要因, 役割·期待要因, 社會·經濟的 地位, 官僚要因, 風土要因으로 區分해서 島民意識 形成要因을 分析해 본 결과 全般的 傾向은 다음의 <表-8>과 같다.

37) 洪貞杓, 前揭書, p.176.

38) 上揭書, p.245.



〈表一B〉 濟州先民意識構造의 形成背景要因

適應型	形成背景要因		家庭要因	文化要因	役割要因	社會階層	官僚要因	風土要因	計
	同一視	日標指向							
防禦型	同一視	日標指向	4 (2.2)	2(1.1)	4 (2.2)	19(10.5)	-	1(0.6)	30(16.7)
	補償	對象喪失	2 (1.1)	-	-	-	-	-	2 (1.05)
	昇	子女동향 特殊能力	1 (0.6)	-	-	1 (0.6)	-	-	1 (0.6)
合理化型		N	1 (0.6)	1(0.6)	1 (0.6)	2 (1.1)	1(0.6)	-	5 (2.8)
	投資	射	8 (4.4)	2(1.1)	6 (3.35)	22(12.2)	1(0.6)	1(0.6)	40(22.2)
	달	도 몬	2 (1.1)	-	-	1	-	-	2 (1.05)
逃避型		N	5 (7.8)	-	14 (7.8)	29(16.1)	3(1.6)	-	3 (1.7)
	孤	立	8 (4.4)	1(0.6)	14 (7.8)	31(17.2)	3(1.6)	-	52(28.95)
	抑	歷	2 (1.1)	1	4 (2.2)	2 (1.1)	-	-	57(31.7)
攻擊型		N	1	-	2 (1.1)	1	-	-	9 (5)
	退	行	-	-	1	3 (1.6)	-	-	4 (2.2)
	固	著	-	-	-	-	-	-	4 (2.2)
其他		N	3 (1.6)	1	2 (1.1)	-	-	-	1 (0.6)
	直	擊	6 (3.4)	2(1.1)	9 (5)	6 (3.35)	-	1(0.6)	6 (3.3)
	間	擊	-	1	2 (1.1)	2 (1.1)	-	-	24(13.3)
其他		N	4 (2.2)	4(2.2)	17 (9.4)	6 (3.4)	8(4.4)	5(2.8)	5 (2.8)
	反	抗	-	-	4 (2.2)	2 (1.1)	1	-	44(24.4)
	反	成	4 (2.2)	5(2.8)	23(12.8)	10 (5.55)	9(5)	5(2.8)	7 (3.9)
合計		27(15%)	10(5.6%)	54(30%)	69(38.3%)	13(7.2%)	7(3.9%)	180(100)	

윗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先民意識을 形成하는데 影響을 끼친 要因으로는 社會階層要因이 全體의 38%로서 가장 많이 作用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役割要因(30%), 家庭要因(15%), 官僚要因(7%), 文化要因(6%), 風土要因(4%)의 順位로 나타나고 있어, 本島民性形成에는 社會階層 및 役割要因이 주된 形成背景要因임을 엿볼 수 있다. 보다 자세히 分析해 보면 社會階層要因으로 家庭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와 社會構成員들의 教育程度나 수입 등, 社會·經濟的 地位의 高低에 따라 意識形成에 크게 影響을 끼치고 있으며, 役割要因으로는 役割-期待, 役割-概念, 役割-受容, 役割-遂行하는 過程에서 많은 影響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家庭要因으로는 親子關係에서 發生하는 父母의 態度 및 人間關係가 影響을 끼치고 있으며, 官僚要因으로 官員들의 加虐的, 惡用的 態度가, 文化的 要因으로 儒敎文化에서 유래한 五倫과 佛敎文化的 五戒가, 風土要因으로는 暴風雨, 季節風, 寒暑, 漢拏山, 바다, 거칠은 밭 등이 우리 先民意識 形成에 影響을 끼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2. 防禦型的 形成背景要因

防禦型的 性格形成에 影響을 끼친 주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8>과 같다.

그리고 濟州島民意識 形成背景要因으로 어느 하나의 要因만이 關여한 것이 아니라 여러 要因 相互間에 密接하게 關聯된 것이다.

<表-8> 防禦型的 性格形成 背景要因

適應型		形成背景要因							計
		家庭 要因	文化 要因	役割 要因	社會 階層	官僚 要因	風土 要因		
防	同一視	目標指向	4 (2.2)	2 (1.1)	4	19 (10.6)	-	1	30(16.7)
		對象喪失	2 (1.1)	-	-	-	-	-	2 (1.05)
禦	補償	子女 통한 補償	1 (0.6)	-	-	-	-	-	1 (0.6)
		特殊能力	-	-	1	1	-	-	2 (1.05)
型	昇	華	1		1	2(1.7)	1	-	5 (2.8)
		N	8 (4.4)	2 (1.05)	6 (3.35)	22 (12.2)	1 (0.6)	1 (0.6)	40(22.2)

위 <表-8>에서 보는 바와 같이 防禦型的 性格形成要因으로는 社會·經濟的 地位가 12%로서 가장 많은 要因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家庭要因, 役割要因,

文化要因, 그 외의 官僚 및 風土要因의 順位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先民意識中 防禦型的 性格特性的 主된 形成要因이 社會的, 經濟的 地位의 高低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目標指向的 同一視型的 形成要因으로는 社會階層이 全體의 약 11%로 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와 關聯된 民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근면」

벼 쌀이 나무 지러 가며  
밭벼 쌀이 물 지러 가라  
그 밤 한 술 날 주었으면  
나무를 지나 물을 지나 할걸<sup>39)</sup>

「생활고」

덩굴지어도 나만이네  
나무지어도 나만이네  
갈아 입을 옷이 없어  
언제랑 이도령 와서  
쌀인 빨래 하러가리<sup>40)</sup>

이 두 首의 民謠는 家庭의 貧困으로 인하여 發生되는 frustration을 同一視 機制를 통해서 解消시켜 가는 과정에서 부른 노래이다. 「근면」은 쌀이나 땀감을 해 오며, 물을 길어오느냐? 밭한끼만 주면 땀감이나 물을 길어오겠다는 信念下에 進取的, 勤勉的, 開拓的, 未來指向的 性格特性으로 定着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생활고」는 단벌 作業服으로 매일 김매기 作業을 하는 處女가 結婚을 하겠다는 굳센 意志가 內包되었다고 본다.

### 3. 合理化型的 意識構造

合理化型的 意識構造 形成에 영향을 끼친 主된 要因들을 살펴 보면 다음의 <表-9>와 같다.

39) 金榮敦, 前揭書, p. 24.

40) 上揭書, p. 26.

〈表-9〉 合理化型의 性格形成 背景要因

適應型		形成要因						計
		家庭 要因	文化 要因	役割 要因	社 會 階 層	官僚 要因	風土 要因	
合 理 化 型	投 射	1	1	-	1	-	-	2 (1.05)
	신 포 도	2(1.1)	-	-	1	-	-	3 (1.7)
	달콤한 레몬	5(1.8)	-	14(7.8)	29(16.1)	3(1.6)	-	52(28.95)
	N	8(4.4)	1(0.6)	14(7.8)	31(17.2)	3(1.6)	-	57(31.7)

윗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合理化型의 性格形成의 주된 要因으로는 社會的 要因이 全體의 17%로써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다음으로 役割期待·家庭要因·官僚要因 등의 順位로 나타났다. 그리고 合理化型의 特性中 달콤한 레몬의 適應機制 즉 만사를 宿命論에 依存해 버림으로 自慰해 나가는 受容性·忍從性으로 定着하는 주된 要因이 經濟的 貧困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先民은 가난을 타고난 八字所關으로 認定하고 묵묵히 受容, 服從하면서, 이를 解決하는 方法은 오직 강한 忍耐力으로 土地와 싸워가면서 節約과 勤勉이라는 思考方式으로 固着化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이와 關聯된 民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忍苦」

나무도 지는 지게비마는  
 돌도 지는 지게비마는  
 우리 어머니 날 지운 지겐  
 남이 버린 지게로구나<sup>41)</sup>

「海女八字」

우리 부모 날 낳을 적에  
 해도 달도 없을 적에  
 나를 낳아 놓았는가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 광실 높은 집에  
 긴 담뱃대 물고 앉아

41) 金榮教, 前掲書, p.127.

濟州民謠에 投影된 島民意識 分析

사랑 방에 잠을 자리  
 해너 팔잔 무슨 팔자라  
 혼백상자 등에 지고  
 푸른 물속을 오락 가락<sup>42)</sup>

이 두 民謠는 모두 自己 處地를 八字所關으로 自認하면서 부른 노래라 할 수 있다.

4. 逃避型의 形成背景要因

逃避型 意識形成에 영향을 끼친 要因들을 考察해 보면 다음의 <表-10>과 같다.

<表-10> 逃避型의 性格形成 背景要因

形成要因		家庭 要因	文化 要因	役割 要因	社會 階層	官僚 要因	風土 要因	計
逃 避 型	孤 立	2(1.1)	1 (0.6)	4(2.2)	2(1.1)	-	-	9 (5)
	抑 壓	1		2(1.1)	1	-	-	4 (2.2)
	退 行	-		1	3(1.6)	-	-	4 (2.2)
	固 着	-		-	-	-	1	1 (0.6)
	強迫觀念	3(1.6)	1	2(1.1)	-	-	-	6 (3.3)
N		6(3.4)	2(1.05)	9(5)	6(3.35)	-	1(0.6)	24(13.3)

윗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逃避型의 性格形成의 주된 要因은 役割期待 (5%)와 家庭要因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全島民性的 特性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5. 攻擊型의 形成背景要因

攻擊型의 意識形成에 끼친 要因을 살펴 보면 다음의 <表-11>과 같다.

42) 上掲書, p.102.

〈表-11〉 攻擊型的 性格形成 背景要因

形成要因		家庭 要因	文化 要因	役 割 要 因	社 會 階 層	官 僚 要 因	風 土 要 因	計
適應型	直接攻擊	-	1	2 (1.1)	2 (2.2)	-	-	5 (2.8)
	間接攻擊	4 (2.2)	4 (2.2)	17 (9.4)	6 (3.4)	8 (4.4)	5 (2.8)	44 (24.4)
	反 抗	-	-	4 (2.2)	2 (1.1)	1	-	7 (3.9)
	N	4 (2.2)	5 (2.9)	23 (12.8)	10 (5.55)	9 (5)	5 (2.8)	56 (31.1)
其他	反動形成	1 (0.6)	-	2 (1.05)	-	-	-	3 (1.7)
合 計		27 (15%)	10 (5.6%)	54 (30%)	69 (38.3%)	13 (7.2%)	7 (3.9%)	180 (100)

위 〈表-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攻擊型的 性格特性은 濟州島民意識에서 代表的인 特性(全體의 31%)으로 나타났으며, 이 型的 主된 形性要因은 役割期待(全體의 13%)라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社會·經濟的 地位의 低下(全體의 38%)라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役割要因, 家庭의 貧困, 官僚들의 加虐 및 惡用, 文化要因, 風土要因 등의 順位로 나타났다. 그리고 間接攻擊型和 役割期待와는 相互作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이와 關聯된 民謠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감자를 먹고」

감자를 먹고 씨우적 거리느냐  
 유자를 먹고 씨우적 거리느냐  
 요 집안의 계집 중 딸년  
 시앗도 아닌 년이  
 나만 보면 씨우적 거린다<sup>43)</sup>

甘言利說에 속아 後妻로 들어온 婦人이 役割-受容間의 葛藤을 解消하면서 부른 노래로서 男便 혹은 本妻에 대해 直接攻擊할 수 없으니 여자중을 통한 男便 혹은 本妻에 대한 間接攻擊임을 엿볼 수 있다.

43) 洪貞杓, 前揭書, p. 262.

「시집 家族」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 살이 어떡디가  
아이고 애야 말도 말아  
소라 닦은 시아버지에  
암탉 닦은 시어머니에  
문어 닦은 서방님에  
졸락 닦은 시누이에  
이네 시집 살려하니  
고추장이 맵다 한들  
내 시집보다 더 매우랴<sup>44)</sup>

며느리의 役割- 遠行에서 葛藤을 解消하기 위하여 고기와 動物로 비유하면서 부른 間接攻擊的인 民謠라 하겠다.

## VI. 要約 및 結論

本研究의 目的은 濟州先民들의 意識構造를 分析하고 그 形成背景要因을 究明하는 데 있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濟州島民謠(洪貞杓, 《濟州島民謠解說》에서 113首,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및 “濟州島民謠研究”, 1983)에 投影된 島民意識을 防禦型·合理化型·逃避型·攻擊型으로 分類하고 量的 側面에서 分析, 檢討해 본 結果, 새로 發見된 主要 事實은 다음과 같다.

1) 島民意識의 主要한 特徵은 Monsoon的인 受容性·忍從性과 沙漠的인 對抗的·挑戰的·進取的·開拓的·攻擊的·未來指向的 特性으로 나타났다.

2) 濟州島民性的 代表的인 特性으로 宿命性·間接攻擊性·目標指向性으로 나타났다.

3) 濟州島民謠에 投影된 島民意識의 全般的인 傾向은 合理化型(32%)·攻擊型(31%)·防禦型(22%)·逃避型(13%)·反動形成 등의 順位로 나타났다.

44) 金榮敦, 前掲書, p.111.

4) 適應樣式의 主要한 特徵으로는 달콤한 레몬, 間接攻擊, 目標指向의 同一視, 孤獨 등을 指摘할 수 있다.

5) 防禦型의 代表的 特徵으로는 目標指向의 同一視(16%), 昇華(3%) 등을 들 수 있다.

6) 合理化型의 代表的 特徵으로는 달콤한 레몬(29%)이다.

7) 逃避型의 代表的 特徵으로는 孤立(5%)과 強迫觀念(3%)이다.

8) 攻擊型의 代表的 特徵은 間接攻擊(24%)이다.

9) 本島民意識의 主要한 形成背景要因으로는 家庭의 貧困(38%)과 役割期待(30%) 및 親子關係(15%) 등으로 나타났다.

10) 間接攻擊型의 主要한 形成要因은 役割葛藤(9.4%)으로 나타났다.

11) 宿命性의 主要한 形成要因으로는 貧困(16%)과 役割葛藤(8%)이다.

12) 目標指向性의 主要한 形成要因은 貧困(11%)이다.

끝으로 濟州島民性이란 宿命性·間接攻擊性이라 할 수 있으며, 濟州島民意識의 形成要因은 家庭의 貧困과 役割葛藤이라 할 수 있다.